

“3.1운동 당시 기독교는 민족의 종교” 강남제일교회,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 시연



교회에서 외친 “독립 만세” 강남제일교회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다. 교회 성도들은 과거 1919년 복장을 하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외쳤다. ©노형구 기자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 시연이 21일 오전 11시 부터 강남제일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시연에 문성모 목사는 한복을 입고, 권사와 장로들은 흰색 한복을 입어 3.1운동 당시 예배의 기억을 환기했다. 또 채성주 권사, 이주강 집사, 양윤철 장로는 독립선언서를 직접 낭독하며, 3.1운동 정신을 고취시켰다. 설교는 노혜미야 1:11-2:5, 8:1-12를 놓고 문성모 강남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전했다.

그는 “현재 한국은 독재에 대한 항거는 없으나 국론은 사분오열되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비난하고 있다”며 “혼란과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으며, 국민들이 존경할만한 민족의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그는 “3.1운동 당시 기독교는 민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 종교이고, 말씀 중심의 신앙공동체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이를 본받아 인간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며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민족의 희망임을 믿고 선포하는 종교”라고 역설했다.

또 그는 “노혜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의 술 말은 관원이었다”며 “그러나 자기 지위를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핍박을 감수하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그는 “3.1운동 당시 교회는 민족의 문제를

안고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였다”며 “민족을 위해서라면 종교도, 이념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사회참여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기풍, 주기철, 손양원 목사와 더불어 독립운동가들인 안창호, 이승훈, 이승만, 이상재, 조만식, 서재필, 윤치호 등은 모두 기독교가 키워낸 인물들”이라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신민회에 주도적 역할도 감당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현재 한국교회는 노혜미야 같은 인물들, 3.1운동에 주도적 참여했던 기독교독립운동가들 같은 지도자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교회를 지적하며, 그는 “교회는 커지고 유명해지는 데만 관심 많다”며 “사회는 이런 물량주의적 자랑보다 정직과 진실성을 더 요구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교회는 돈, 명예, 권력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며 “교회를 통해 천국의 윤리와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앙 하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며 “민족의 해방과 구원 그리고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을 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말씀이 없는 사회참여나 애국심은 삼일운동의 정신과 거리가 멀

다”고 지적했다. 예로, 그는 “민족대표 33인 중 하나인 이갑성 옹의 증언에 의하며, 삼일운동은 원래 3월 2일날 거사하려 했다”며 “그러나 2일이 주일이기에, 기독교 지도자들의 반대로 1일날 거사가 잡혔다”고 전했다. “교회는 이런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철저히 구별하려는 정신이 있었다”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위에 거사를 행했기에, 3.1운동이 민족 전체 그리고 세계만방에 우리 독립의 의지를 알릴 수 있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특히 그는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는 정치적 사건에 이용만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로, 그는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민주혁명 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됐고, 성공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며 “그러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통일 후 교회를 떠나고, 다시 텅 빈 공간이 돼 버렸다”고 전했다. 때문에, 그는 “교회가 말씀에 굳건히 서서 민족과 운명을 함께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민족이 교회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교회는 민족을 사랑하고 바르게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것”을 소망하며 설교를 마무리 했다.

모든 회중들은 만세 삼창을 외치며,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며, 모든 예배 순서는 마무리 됐다.

노형구 기자

코메니우스 ‘범 지혜’는 교회연합 정신을 강조해

정일웅 교수·박조준 목사, 제3회 목회자 컨퍼런스 강연

제3회 목회자 컨퍼런스가 ‘한국교회,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한국YMCA 강당에서 오전 10시 부터 개최됐다. 한국코메니우스연구소가 개최한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의 첫 번째 강연자로 정일웅 교수(전 총신대 총장, 현 한국코메니우스연구소 소장)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도전, 형제연합교회와 코메니우스의 영성’을 주제로 강연했다.

코메니우스는 1592-1670년 까지 살았던 신학자로, ‘범 지혜’를 강조했다. 당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와의 30년 전쟁에서 카톨릭 권력이 제후들과 연합해, 프로테스탄트를 믿는 도시들에게 가톨릭 강제 개종을 요구했다. 이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페르디난트 2세는 프로테스탄트 종교의 자유 보장을 취소하는 칙령을 내려버리자, 프로테스탄트들은 팔츠 선제후인 프리드리히 5세를 왕으로 세우며 30년 전쟁은 이렇게 시작됐다. 페르디난트 2세의 칙령으로 보헤미아-모라비아지역의 프로테스탄트들은 박해를 받았는데, 코메니우스와 그가 세운 형제연합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서두에서 정일웅 교수는 “코메니우스와 형제연합교회는 당시 루터의 칭의론 남용에 관해 경고했다”며 “당시 루터 칭의론은 가톨릭의 행위 구원에 대한 반박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강조했지만, 이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웃사랑의 계명 준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죽은 믿음임을 코메니우스는 강조했다”고 했다.

하여, 그는 “코메니우스는 훈육의 가치

를 매우 중요시 했다”며 “신앙이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훈육을 받게 해야 함을 그는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코메니우스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순종과 실천 또한 강조한 것이다.

특히 그는 “코메니우스는 당시 요한 피셔라는 칼빈과 개혁신학자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그 결과, 천년왕국에 대한 수동적 태도보다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책임성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그는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들은 천년왕국을 교회시대와 동일시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일에만 집중했다”며 “반면 코메니우스는 나아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및 인간 스스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그에 따른 삶의 책임을 자발적으로 수행함을 강조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른바 “코메니우스의 범 지혜 사상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과 인간 및 피조세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추구”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 인간의 삶을 개선함으로써,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를 원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때문에, 그는 “코메니우스는 능동적 천년 왕국론 실천을 위해 범 지혜 사상을 주창했다”며 “학교교육(학문), 국가(정치), 교회(신학)의 개혁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퍼져, 참된 평화의 때가 모든 세계 민족들을 결속시키는 천년왕국론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그는 “참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충만해 지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이 도래”라

며, 코메니우스의 범 지혜가 추구하는 천년왕국을 재차 말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코메니우스의 30년 전쟁 박해 속에서 점점에 이르렀다. 정일웅 교수는 “페르디난트가 루돌프 2세의 종교자유의 칙령을 무효화 시키며, 모든 체코인들은 가톨릭으로 강제 개종했다”며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에 지내던 모든 프로테스탄트들은 추방당해야 했다”고 했다. “이러한 추방명령으로, 코메니우스 및 형제연합교회 지도자들도 피난하고 숨어지내야 했다”며 “그의 조국, 보헤미아-모라비아의 모든 프로테스탄트 예배는 금지됐고, 학교들은 폐쇄됐으며, 모든 자유는 박탈당한 상태에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은 계속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럼에도, 그는 “코메니우스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목회자로서 직분을 수행했다”며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약속한 성경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는 코메니우스의 범 지혜 사상과 궤를 같이 하게 된다. 정일웅 교수는 “30년 간 지속된 종교전쟁에서 드러난 악마적 인간 행위를 목격했음에도, 코메니우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 희망을 품었다”며 “이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라는 확고한 신념에서 나온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근본 믿음을 통해 모든 인류가 모든 지혜의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며 “코메니우스의 범 지혜는 결국 학교, 교회, 국가 3개 영역의 개혁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그리스도의 통치 질서 가운데로 환원하는 비전을 추구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그는 “인간은 지성, 덕성, 경건성(신앙)이란 씨앗을 내포하고 있으며, 범 지혜의 배움을 통해 하나님의 원 형상인 그리스도도를 닮아가게 된다”며 “때문에 이를 실현시키는 학교 교육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범 지혜의 교육에서 코메니우스는 학문, 예술, 기술, 언어, 종교에 집중했다”며 “모든 것 중, 경건성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중요시 했는데, 이는 인간 성품의 핵심적 본질로 보았다”고 재차 말했다. 더불어 그는 “당시 교사의 폭력을 동원한 교육방법을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범 지혜의 지향점에 대해, 그는 “당시 코메니우스는 전체 학문 영역은 견해자이, 논박, 논쟁들로 가득 차 있었다”며 “이러한 원인은 바로 인간들이 연구 영역을 분리시킨 데서 기인했다”는 코메니우스의 생각을 재차 전했다. 이어, 그는 “코메니우스는 하나님의 인정처럼 모든 사물과 인간에게 원형(Urbild)이 새겨져 있음을 생각했다”며 “범 지혜는 결국 관현악단의 연주처럼, 모든 음색이 완전해 지기 위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함을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모든 사물과 인간은 자기의 원형을 파악하고, 제작자인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범 지혜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이에 기여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일웅 교수는 “이러한 코메니우스의 범 지혜는 교회연합 정신 또한 강조했다”며 “코메니우스의 형제연합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된 하나의 교회에 속한 지 교회로서, 형제 연합을 추구”함을 전했다. 특히 그는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으로 모든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허락됐지만, 형제연합교회는 종교자유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형제연합교회는 몰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코메니우스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루터, 개혁파에 속해 협동 단체 할 것을 당부했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어 박조준 세계지도력개발원장은 ‘이 시대의 목회자 상(像)’을 발제했다. 그는 “목사는 영어로 ‘Pastor’라며 “목사의 가장 주된 사역은 양을 치는 것, 영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먹이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영의 양식을 먹이는 설교는 목사에게 재미있고 행복한 일”임을 덧붙이며,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 받아라’라고 했듯, 목사의 언행일치는 중요하다”며 언행일치로 권위가 세워짐을 전했다. 다만 그는 “우리가 많은 바 100%를 감당하되, 120%하려 하지 말라”며 “그것은 교만이며 우리가 120%를 감당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목사는 하나님의 대사”라며 “목사에 대한 금지를 가지며, 권력가를 만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은 그의 외적 조건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목사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고아와 과부를 만나는 태도와 대동령을 만나는 태도는 동일해야 함”을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그는 “목사는 명예욕을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목사의 명예욕은 예수의 보좌까지 탐낸다”며 “목회는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닌 사명으로 하는 것”임을 밝혔다. 또 “목회는 결코 쉽지 않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직접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임을 그는 덧붙였다.

때문에 그는 “우리의 목회는 골리앗의 자신감이 아닌 다윗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모든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있기에, 믿고 맡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 감당하면 될 것”을 말했다. 이어 그는 “목회자는 끊임없이 기도과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목사는 큰 틀에 있어 말씀에 가장 전념해야 하는 영역에 세운 받았다”며 “목사의 영적권위는 말씀 즉 설교로부터 온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목사의 영적 권위는 설교와 삶이 일치하는 것에서 온다”며 “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해나가는 것”임을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그는 “목회자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신호등이 되는 것”이라며 “광야의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하여, 그는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한국사회의 도덕적 문제는 먼저 목사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그는 “목사들이 윤리적으로 바로서야 이 사회가 바뀌질 수 있다”며 “대접받지 못함을 당연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냐면 그는 “예수님도 대접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대접받는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이어 이날 발제자로는 신현철 박사(마포중앙교회)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를, 김영한 교수(전 숭실대 기독교학원장, 기독교학원장)가 ‘한국교회, 개 교회주의와 개교파주의 극복 어떻게?’, 김희선 장로(정음 시민교회)가 ‘한국교회, 연합기관 실체에 관한 경험’을 전했다. 제 3회 목회자 컨퍼런스는 22일 까지 서울 YMCA에서 이어진다.

노형구 기자



박은조 목사

박은조 목사, 은혜샘물교회 사임

은혜샘물교회 박은조 목사의 담임목사직 사임이 결정됐다. 은혜샘물교회는 지난 19일 오전 당회를 열

고, 박 목사의 사임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예장고신 측 인터넷 언론인 코람데오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박 목사는 건강문제로 3개월의 안식일을 얻어 쉬고 있었는

데, 이미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당회에 사임 의사를 피력했다고 한다. 당회는 때가 아니라고 만류했지만, 박 목사는 19일 당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다시금 설명한 후 사임을 결정지었다.

36년 목회 인생 마무리

은혜샘물교회는 30세에 시작했던 서울 영동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하다가 모 든 것을 내려놓고 1998년 분당에 샘물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은조 목사님 생로교회에서 14년의 임기를 마치면서 2010년

관교에 분립개척한 관교샘물교회와 2012년 동백에 분립개척한 은혜샘물교회가 기흥구 상하동에 학교와 교회공간 마련을 위해 하나로 합쳐진 교회이다. 박 목사는 목회인생 36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13개의

교회를 분립 개척시켰다.

한편 박 목사는 가능하면 현재 은혜샘물교회 부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후임으로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식 기자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의 지향은 초대교회” 2019 아나뱃티스 컨퍼런스에서 메노나이트 김복기 선교사 발제



메노나이트 선교사 김복기 목사

2019 아나뱃티스 컨퍼런스가 기독교회관 2층 조에실에서 19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됐다. 아나뱃티스트들이 살아온 공동체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으로, 이날 첫 번째로 캐나다에서 메노나이트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복기 목사가 발제했다. 서두에서 그는 아나뱃티스트 공동체를

소개하면서, “아나뱃티스트 공동체 중 내가 속해 있는 메노나이트는 교회와 삶의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았다”라며 “서로 간수저, 포크가 몇 개 있는지 알 정도로 친밀한 공동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아나뱃티스트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은 바로 복음과 삶이 일치하는 교회”라고 전

하며, “현재 한국 교회는 복음은 있는데,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교회는 주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모임이지, 제도나 건물은 아니”라며 “결국 이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 이 땅 위에 존재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21세기 한국 교회에서 개혁 운동을 논하는 사람들은 16세기 종교개혁 지도자 루터, 초빙글리로 돌아가자고 외친다”며 “그러나 이들은 정작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드러난 초기 교회공동체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교회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단초는 바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드러난 초대 공동체상을 본받는 것”이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다양한 아나뱃티스트 공동체를 소개했다. 먼저 그는 후터라이트 공동체를 소개하며, “1527년 아나뱃티스트들은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교회 개혁을 외치다, 박해를 받았다”며 “이 때 모라비아 지역으로 피신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그는 “모라비아 지역에서 1528년부터 후터라이트 공동체가 시작됐지만, 박해는 여전했다”며 “박해를 피해, 모라비아, 슬로바키아, 트랜실바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으로 옮겨 결국 1918년에 캐나다로 정착했다”고 소개했다.

후터라이트 공동체 원칙도 소개했다. 그는 “후터라이트의 기본 원칙은 결국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라며 “기준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재산 공유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며 “자치구에 있는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갖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을 나누어 갖는다”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자발적이며 강요는 없다”며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개인 은행 계좌가 없고, 공동생산, 공동 나눔 형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자치구 형태로 거주하며 평균 80명 정도”라고 소개하며, “만일 100명이 넘어가면 분리를 한다”며 소규모 공동체를 지향함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가족별로 살지 않고 공동체 단위로 삶을 영위한다”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지만, 공동체가 부여하는 개인 소유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그는 “공동체원들은 성공과 실패 모두를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농업, 축산을 주요 경제 기반으로 삼았지만, 현재는 제조업으로 옮겨갔다”고 전했다. 또 그는 “결혼도 후터라이트 공동체 안에서만 이뤄지며, 될 수 있으면 남자 쪽이 다른 콜로나에서 결혼 여성을 찾는다”라며 “이혼은 허락받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는 50쌍이 채 안 된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그는 “자녀들 교육도 공동체 안에서 모두 이뤄진다”고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교육도 유아-유치원-중·고등학교 과정이며, 공동체 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대학가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현재 제조업으로 생산 기반이 옮겨갔지만, 캐나다 후터라이트 공동체가 생산하는 칠면조, 가금류 같은 경우 그 주의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량이 많다. 그는 “주로 후터라이트 공동체는 미국, 캐나다에 많다”며 “1979년 일본 개척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했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 아미쉬 공동체도 소개했다. 그는 “아미쉬 공동체는 미국 30개 주와 캐나다 온타리오 공동체에 존재하며, 남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남미에도 뿌리내리고 있다”며 “현재 인구는 총 330,470명”이라고 설명했다. 특이할 점은, “농촌에 거주하며 공동체 내에 이뤄지는 교육이 8학년 까지인데, 이는 우리나라로 치면 중1 교육에 해당한다”며 “그들은 읽기, 쓰기, 말하기만 해도 된다 생각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학력이 중1이라 해서 무시할 수 없는 건, 그들의 신조가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의 배움”이라며 “그들의 지혜와 철학은 굉장히 깊고 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그들의 핵심 가치로, 그는 “켈라센 하이트를 중시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성경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가치와 의식을 말씀에 고정하는 신념”이라며 “양보, 물러남, 내적복종, 순종, 이기심 극복, 자기주장을 포기하고자 하는 의지, 겸손, 평범한 옷차림, 단순, 폭력을 거부함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가 속한 메노나이트 공동체를 소개했다. 그는 “아나뱃티스트 공동체 중 가장 큰 그룹”이라며 “총 9,624 교회, 146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그린 크로프트라는 돌봄의 공동체를 소개했다. 그는 “수준 높은 돌봄의 공동체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모여 살고 있다”며 “홀로 사는 노인들이 외로움 없이 한데 어울려 살 수 있는 기독교 공동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도시 주변에 위치해 가족과의 접촉을 잃지 않고, 규율에 얽매이지 않는다”며 “노인들에게 필요한 집과 서비스, 장례, 병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공동체 신생아들을 돌보도록 해, 노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의 제자도는 결국 평화를 지향한다”며 “우리에게 공동체와 교회는 동의어이며, 서로의 영향을 최대한 존중하되 결과가 아닌 어울림의 과정에 배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발제를 마무리 했다.

한편 김복기 목사 외에도 발제자로 침신대 김난에 교수는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와 평화의 삶’을, 하늘슬- 좋은나무 공동체 설립자 목사는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와 평화의 삶’을, 동북아 MCC Chris Rice는 ‘화해의 관점에서 보는 공동체의 실제’ 등을 발제했다.

노형구 기자

3.1운동 백주년·부활절 앞두고 한교연, 40일 특별기도운동 벌인다



한국교회연합이 한국교회 동질성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특별기도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전국 기도원 원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여교역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교연 제공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3.1운동 1백주년과 부활절에 즈음하여 한국교회 동질성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특별기도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3.1운동 1백주

년을 전후해 부활절까지 40일간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특별기도기간으로 삼고, 이 같은 내용을 회원교단 및 단체에 목회서신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한국교연은 한국교회 40일 특별 기도운동 전개와 관련해 지난 18일 오후 4시

군포제일교회에서 전국 기도원 원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여교역자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40일 특별 기도운동 전개에 따른 의견을 나누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한국교회가 기도원을 중심으로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 영적으로 부흥과 성장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바”라며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들이 기도원을 멀리하고 교인들에게도 권하지 않음으로써 교회와 기도원이 괴리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한국교회에 뜨겁게 타올랐던 기도의 불씨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도원 원장들은 “이는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커지고 성도들의 삶이 풍요해지면서 기도의 열기가 점점 식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교회들이 기도원을 불신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기도원

자체에 있다”며 “기도원을 통해 건강한 기도운동의 불씨가 살아나려면 건전하게 운영되는 기도원과 그렇지 않은 기도원을 구별해 건전한 기도원을 중심으로 기도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권태진 대표회장은 “한교연이 3.1운동 1백주년을 기해 부활절까지 40일간 특별기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한국교회 동질성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해 나가려 한다”며 “건전하게 운영되는 기도원들을 중심으로 같은 제목으로 릴레이로 기도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장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한 제목으로 기도하는 기도원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며 한교연이 3.1운동 1백주년과 부활을 즈음에 전개하는 특별기도 운동에 전국의 기도원에서 사역하는 여교역자들을

중심으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기도원 원장 여교역자 초청 간담회에는 예장 합동개혁 부총회장 오영자 목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월계동 기도원장)를 비롯, 김정숙 목사(민족복음화 증경대표), 이길자 목사(삼각산 기도

원, 국제공화기도원장), 임은선 목사(능력기도원장), 황송자 권사(아가페기도회) 등이 참석했으며, 한교연에서는 상임회장 김효중 목사와 선교위원장 김바울 목사,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 기획홍보실장 김훈장로가 배석했다.

박용국 기자

기록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 김광수	발행인 장세규	편집인 김규진	인쇄인 허요섭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등록번호: 서울 가50089		등록연월: 1990년 7월 19일	
		간별: 일간	
미주 기록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록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www.kogas.or.kr

바르게 딛는 안전의 첫걸음

굴착신고 및 사전협의는 굴착공사의 처음입니다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 손상사고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굴착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굴착신고는 필수입니다.

굴착공사 신고절차

굴착공사계획 신고 ● 접수번호 발급 ●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굴착공사개시 통보 ● 굴착공사 시행

*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인 2세가 감옥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The Lock Ministry
한기영 목사를 만나다



한기영 목사는 The Lock Ministry를 통해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며, 숙소와 직업을 제공하며 자체 운영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사역 목표는 ‘임시 기숙소 확보’, 직업 훈련소 준비, 직업 훈련 자원자 네트워크 구축이다. ©미주 기독교일보

지난주 금요일 미주 기독교일보 사무실에서 The Lock Ministry의 한기영 목사를 만났다. 2017년 17년간 목회한 교회를 은퇴하며 33년을 산 미시간을 떠나, 자동차에 당장 필요한 옷가지를 싣고 캘리포니아로 왔다. 그리고 작년 10월 ‘간헐 자에게 농임을’을 펴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LA에 언제 오셨나요?” 통성명 같은 기자의 질문에 그는 긴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제작년 1월 말에 LA에 왔다. 브레아에 있는 엠베서더교회(Ambassador Church)에 나가 예배를 드렸다. 한국인 2세가 목회를 하는, 다양한 인종이 모인 다민족교회다. 25년 전 그곳 목사님이 탈북을 졸업하고 전도사로 게실 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오셔서 청소년 수련회를 섬겨주셨던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러다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떤 모임에 갔다가 남산국 목사님을 만나게 됐다. 마침 그분이 저와 동갑이셔서, 제게 무슨 교회를 다니시는지 물으시며, 부에나팍에 있는 원호프교회(One Hope Church)를

소개해주셨다.”

“원호프교회는 한국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나오는 교회인데 한국 목사님들이 교대로 말씀을 전하는 성도 수 20명 정도의 작은 교회다. 그 교회 절반이 저 같은 은퇴한 목사이고 반은 양로사역, 노인 대학, 멕시코 선교 등을 하신다. 거기서 감옥 사역을 하시는 John Lee 목사님과 함께 구치소를 찾아가게 됐다.”

“미시간에 있을 때는 한인 2세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나 많은 한인 2세들이 감옥에 갇혀있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다 교회를 가 봤고, 부모님도 모두 장로, 권사, 집사, 심지어 목사인 경우도 있었다.”

“19살의 데이비드(가명)는 머리는 모호크 스타일로 자르고, 온몸에 타투를 하고 있었다. 이 아이가 처음 나왔는데 무시무시했다. 감옥에서 면회를 하면 20분 정도 시간을 주는데, 대화를 마치고 기도하는 것 외에 내가 도와 줄 것이 있는 지 묻자, 그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John Lee 목사님께 여쭙봤더니, 50불까지 영지금으로 넣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

다. 그래서 50불을 넣어주었고 3주후 그를 다시 만났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시 물었다. ‘기도 말고 너를 위해 해줄 게 있나?’ 그의 대답은 지난번과 똑같았다. 감옥 안에서도 마약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고민이 됐지만 지갑에 있던 40불을 줬다.”

“2주후 그를 만났는데, 그가 ‘pastor Han, pastor Han’이라며 반갑게 나를 맞았다. 자기가 성경 공부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요셉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했다. 싸움이 일어나면 거기에 빠지지 않아서 별명이 rush였고 19살 때, 이미 총을 세군데나 맞았고, 12살부터 소년원을 들락날락 했던 아이였다. 그런 그가 다시는 절대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작년 4월 재판을 받고 무죄(not guilty)로 풀려 나왔다. 고등학교 자격증을 받아 사이프레스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했다.”

그는 이들을 만나며 발견한 사실은, 이들에게 죄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젊은 수감자들에게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대부분 야구를 들어 올릴 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에베소서 2:10절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걸작품’(God’s Masterpiece)임을 가르쳐주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Mission)과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할 책임(Mandate)이 있음을 가르친다.”

그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역을 통해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40살이던 다니엘은 살인으로 종신형을 받은 상태였다. 그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수화가 너무로 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눈물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가 눈물을 흘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침례교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침례를 통해 많은 감동을 받은 했다.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겼다가 부활을 체험하는 상징적인 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편으론, 감동 없이 밋밋하게 믿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감옥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감동을 받았다.”

감옥에서도 침례를 주시나요?

“침례를 침례하진 못한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를 할 수 있지만 일대일 상담이 안되기 때문에 한사람 한사람과 면담을 한다. 밑바닥에 내려가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 구치소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높아져 있는 수감자들도 많다. 한 2-3년 정도 거기 있으면 정신을 차리는 것 같다. 자기 파트너를 죽이고 구치소에 들어와 7년을 보낸 수감자(40세)가 있었다. 그는 구치소에 들어 온지 3년 반 만에, 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밑바닥을 체험했다.”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것,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한 영혼을 향한 관심 때문이었다.

“이 책을 한달 만에 쓴 게 너무 신기하다. 작년 7월, 내가 만난 사람 중 한 사람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그러다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그를 위해 기도하고 책상에 앉아 약 한 달간 그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쓴 글이 모여 한달 만에 책으로 나오게 됐다.”

Lock Ministry란 무엇인가?

“제작년 9월 첫째 주일날, 우리 감옥 사역팀에서 불로한 한 청년이 아버지와 함께 엠베서더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그리고는 매주 예배를 드렸다. 기쁜 마음으로 그와 함께 점심을 먹고, 청년 소그룹 모임에 연결해 주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딱 2달 만에 끝났다. 12월 첫째 주일이 됐을 때 그가 오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들이 다시 마약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우리 사역이 실패했다.”

그는 그 실패의 원인을 팻 놀란의 책 《죄수가 돌아올 때》(When Prisoners Return)에서 발견했다고 말한다.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던 팻 놀란은 형제로 감옥에 들어간 이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치를 그만두고 찰스 콜슨이 이끄는 교도소선교회(Prison Fellowship)에 들어가 교정사역을 시작했다. 이 책에서 그는 ‘재소자가 돌아올 때 교회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운전면허도, 직업도, 의료보험도 없다. 미국내 감옥에 있는 재소자는 220만 명에

이른다. 그중 매년 60만 명이 출소하지만 67.8%가 3년 내에 다시 잡혀 들어간다. 이를 재범(recidivism)이라 한다.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두번째, 교회가 멘토 역할을 해야 한다. 청년들을 만나며 정말 답답했던 것은 그들이 정말 형 같은 멘토를 만났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란 점이었다.”

“미시간 주변에는 큰 호수가 많다. 그런데 이 호수들의 높이가 같지 않아서 큰 급류가 생기기 때문에 배가 다니지 못한다. 북 미시간에 수 세인트 마리 라는 도시가 있다. 캐나다 점점 도시인 거기서 수퍼리어나 호와 휴론 호가 만나는데, 이 두 호수의 높이 차를 극복하고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갑문(the Lock)을 설치했다. 파나마 운하에도 태평양과 대서양의 높이가 달라 갑문이 설치되어 있다.”

“갑문은 양쪽에 수문을 만들어, 수위를 갖게 만들어 배가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위치에 있다. 마치 미국으로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안에서 길러지듯,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정도가 될 때까지 보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

“Lock Ministry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Love of Christ’s Kingdom, Learn On Christ’s Kingdom, Live Out Christ’s Kingdom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감옥을 방문해 말씀을 전하고 큐티 집, 성경책을 제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그리고 먹고 살 곳을 쥘아 한다. 다음으로 제대로 된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고 훈련을 시켜야 한다. 그러면 자기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는 이 사역을 위한 모델로 삼는 교정 사역 단체들에 대해 설명했다.

“예수회 그레고리 보일 신부가 1992년 LA에 갠단 재활을 위해 설립한 홈 보이 인더스트리즈(Homeboy Industries)는 식당과 빵공장을 운영하며 이들에게 직업을 제공한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델랜시 스트리트 재단(Delancey Street Foundation)은 1971년 미미 실버트 박사에게 의해 시작됐다.”

“그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심리학과 범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감옥에서 나온 청년들을 자기 집에 데려와 재우기 시작해 47년 동안 1만 5천명 이상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다. 현재는 샌프란시스코 베이브릿지 아래 500명 동시수용이 가능한 건물을 지어 1,2층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3,4층은 숙소로 사용한다. 이 재단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40개의 사업을 운영하며 자금 자족하고 있다.”

“미미 실버트 박사는 이곳을 ‘꿀짜들을 위한 허버드’라고 부른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정장으로 갈아입히고 오페라 공연에 데리고 간다. 정장을 한번도 입어본 적이 없고, 오페라 공연에 가본 적도 없는 이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또 ‘Teach other, each other’이란 모토로,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서로 배우고 가르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중학교 실력을 가진 사람을 가르치고, 중학교 실력을 가진 사람은 초등학교 실력을 가진 사람을 가르치며 아무 것도 가르칠 게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한기영 목사는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감옥에 있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미 크리스천이거나 최소한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교회와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거나 포기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교회와 그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돕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The Lock Ministry는 20일 주일 오후 5시 Ambassador Church(701 S. Sunkist St., Anaheim, CA 92806)에서 “The Lock Ministry 창립 및 한기영 목사의 저서 ‘간헐 자에게 농임을’ 출판 기념 예배’를 드렸다. 웹사이트: thelockministry.org.

미주 기독교일보 주디 한 기자

노은아, 성당서 한국의 ‘산조’ 해금 연주

노은아 해금독주회 ‘산조’가 오는 2019년 1월 31일 오후 6시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산마르코대성당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서울예술대학교 음악학부 한국음악전공 교수인 노은아 해금연주자는 한국 전통 음악 중 민속음악을 대표하는 ‘산조’로 세계인의 희노애락을 해금의 두 줄 속에 담아낼 예정이다. 해금연주자 노은아는 영혼의 해금소리, 관중을 압도하는 강렬한 해금 소리 소유자라는 수식어가 늘 함께 했다. 해금을 연주하는 노은아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받으며 한국음악 전공의 엘리트코스를

밟은 실력과 연주자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공부를 진행하였고, KBS 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15년 활동했다. 지금은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해금 솔리스트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국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동서양 현악기들을 모아 SeoulArts String Ensemble 합주단을 창단하여 3년간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악의 대중화와 보급화를 위해 힐링의 음악에 안주하던 21세기 해금의 모습과는 달리 한 국음악의 정체성과 확고한 방향성을 가

지고 세계를 향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현대 해금 음악으로써 세계화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는 선두에 노은아가 있었다. 이미 2010년 발매한 ‘세계를 꿈꾸다’에는 세계인들과 소통이 가능한 음악들로 가득하며 전통적으로 국한되어 있던 해금연주에 다양한 동, 서양 현악기의 특성과 연주법을 활용하여 해금 연주법을 정립하였다.

노은아의 섬세하고 단단한 완성도 높은 해금 소리와 상상을 초월하는 주법과 테크닉이 더해져 오랜 세월동안 불가능이라 여졌던 해금의 한계를 뛰어 넘는 폭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여지없이 보여주 고 있는 음악들로 해금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합작해 비상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산마르코대성당의 세계무대에서 오롯한 한국의 전통음악으로 승부를 건다. 한국 전통 민속음악을 대표하는 ‘산조’를 주제로 해금산조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지영희류 해금산조>와 <한범수류 해금산조>, 가야금의 명인 강태홍이 자신의 산조가락에 직접 춤을 엮은 ‘산조춤’을 선보인다. 부채산조라 불리는 산조춤은 부채를 든 고고한 모습으로 고도의 절제된 춤으로 청아하면서도 화사한 느낌

의 춤이다.

한편 노은아 해금연주자는 “해금산조는 그 고유한 소리로 우리를 은은함의 깊은 못에 침취하게 하는 특성이 있으며 세계인들은 이 연주를 통해 우리 민족의 세계관, 사상, 철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산조춤이 더해져 이를 통한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세계인에게 전할 것이며, 전통이 깃든 고유한 예술은 서로 공존하며 상호작용하듯 이번 연주를 계기로 해금의 예술적 표현 범위가 넓어져 가치가 더욱 존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내라 기자



해금연주자 노은아

이겨내다. 나아가다.

Since 1933 대한민국 **진통소염제**

안티푸라민®

☑ 근육통 ☑ 관절통 ☑ 어깨통증

광고심의필 : 2018-1465-000502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함부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의 상의하십시오

살롬을꿈꾸는나비행동, 뉴스앤조이의 기독교 정체성 의혹에 대한 논평



기독교학술원장
살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환 박사

최근 뉴스앤조이(이하 뉴조)의 그릇된 보도행태에 대한 한국교회와 언론 및 시민단체의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어 뉴조에 대한 한국교회 지원 중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한국교회수호결사대가 뉴스앤조이 사무실 앞에서 뉴조 규탄 성명서를 다음같이 발표했다: “지금까지 뉴스앤조이에 보도된 기사를 검색해보면, 도저히 기독교언론사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반기독교적이며, 다원주의적이며, 노골적 한국교회 죽이기로 일관한 기사들로 넘쳐난다.” “도대체 어떤 커넥션이 있기에, 동성애와 이슬람을 미화하며 독재자 김정은에게 짓밟히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과 경제 납치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유린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도 2018년 12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는 뉴조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고 다음같이 비판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 작은 비리에도 혹독한 비판을 서슴치 않는 뉴스앤조이는 자신의 비리에 대하여는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남을 향해 들고 있는 언론의 주창을 내려놓고 자신의 비리에 대하여 투명하게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뉴조는 스스로 한국교회를 깨우는 독립언론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를 정면 도전하고 있다.’ 뉴조는 ‘교회를 해체시키려는 포스트모더니즘에 기반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활동을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뉴조는 스스로 복음주의 언론이라 주장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동성애대책위원회도 2018년 12월 28일 C채널 ‘뉴스앤조이 후원을 중단하십시오’ 코너에서 “뉴

스앤조이는 퀴어신학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인 해방신학 다원주의 그리고 주체사상을 기독교에 접목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뉴스앤조이는 그동안 한국교회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기독교 언론을 자처하며 기존교회에 대한 날선 비판과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해 왔는데, 과연 뉴조가 이러한 보도내용을 선별하는 기준이 ‘기독교적인가’ 라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즉 뉴조가 보도하는 사실의 배경이 되는 진실이 교회의 성숙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추구인지 많은 교회들과 독자들은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이러한 비판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살롬나비는 뉴조가 그 존립목적 및 양식의 모호함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며 뉴조 후원교회들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한다. 또한 뉴조의 여러 의혹을 계기로 한국의 기독교 언론들이 기독교 언론으로서의 정체성과 각 언론기관의 사명의식을 새롭게 하여 오히려 한국교회언론의 쇄신과 교회 성숙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1. 한국교회에 대한 위해(危害)적인 보도를 멈추고 기독교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치관을 공개적으로 밝히야 한다.

뉴스앤조이가 기독교언론으로 자처하지만 그동안 뉴조의 보도의 경향과 취재예를 적극 옹호하는 뉴조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고 다음같이 비판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 작은 비리에도 혹독한 비판을 서슴치 않는 뉴스앤조이는 자신의 비리에 대하여는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남을 향해 들고 있는 언론의 주창을 내려놓고 자신의 비리에 대하여 투명하게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뉴조는 스스로 한국교회를 깨우는 독립언론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를 정면 도전하고 있다.’ 뉴조는 ‘교회를 해체시키려는 포스트모더니즘에 기반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활동을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뉴조는 스스로 복음주의 언론이라 주장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동성애대책위원회도 2018년 12월 28일 C채널 ‘뉴스앤조이 후원을 중단하십시오’ 코너에서 “뉴

에 기생하면서 재정적 이익을 취하는 점에서 황색언론이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린다는 점에서 사이비 언론이라 할 수 있다. 즉, ‘뉴조의 언론활동은 ’기독교’와도 상관이 없으며 ‘언론’으로서도 한국사회에서 그 존재가치가 적다 하겠다. 따라서 뉴조는 자신들이 천명한 ‘기독교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과 주체사상과의 무관성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교회 및 다른 기독교 언론들과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국사회와 교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만약 뉴조가 주체사상이 기독교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라고 본다면 교회들을 상대로 모금 활동을 멈추어야 한다. 뉴조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언론이라면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언론이므로 한국교회는 이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 후원하는 교회들은 뉴스앤조이의 공식적인 주체사상 부인이 나올 때까지 후원을 거부해야 한다.

기독교언론은 교회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며 함께 발전해간다. 뉴스앤조이가 자리잡을 수 있었던 큰 이유는 한국교회와 급성장하면서 쌓인 여러 문제들에 대한 자정 능력이 부족할 때 뉴조가 교회개혁을 표방하면서 독자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부정적 언론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는 이해한다고 해도 이미 그 실체가 의심되는 뉴조의 분명한 해명과 약속(주체사상과의 관련성, 보도개선)을 확인할 때까지 후원을 보류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회개,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에 주력해야 한다. 보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한다. 후원이라는 명목의 재정적 결탁으로 개교회 목회자의 성문제, 불투명한 재정, 세습 등의 문제에 대해 단일하게 대처하면 뉴조 같은 언론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것이며 국민의 질타와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우려와 외면은 계속될 것이다. 뉴조의 불투명한 기독교 언론의 정체성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한국교회와 함께 마는 지름길일 것이다. 뉴조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주체사상을 구원의 근거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신천지 등과 같은 이단이다. 또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정체를 위장하고 한국교회

3.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지적하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정체성에 깊은 의혹을 갖게 한다.

동반연이 밝히는 것처럼 뉴스앤조이는 “2018년 1년 동안 340여개의 기사를 작성했는데, 그중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반대 활동을 비난하는 기사를 무려 87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뉴조는 ‘동성애가 무서운 교단들’, ‘보수 개신교회는 왜 동성애 혐오 최전선에 섰나’, ‘예장통합에 몰아치는 반동성애 광풍’ 등의 기사를 작성했다. ‘기독교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임보라 목사’를 옹호하는 기사를 7개나 작성했다. 뉴조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전문가, 학자, 약사, 의사들을 혐오와 차별로 낙인찍고, 이들의 의견 자체를 가짜뉴스라 매도해 공론장에 논의되는 걸 막고 있다. 우리나라에 10~20대 청소년들이 점점 동성애에 몰들고 이들 가운데 에이즈 감염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성문란의 상황을 기독교 언론들이 더 열심히 알려야 하는데,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건 있을 수 없다. 뉴조는 동성애 운동을 막기는커녕 소수자 인권이란 명목으로 조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뉴조의 기독교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4. 자기와 다른 견해를 무조건 가짜뉴스로 낙인찍고 비난하는 것은 공론성 차단하는 독선적인 보도 태도다.

가짜뉴스는 허위 사실을 전달해 수용자가 현실을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정치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기만적 전략이다. 뉴스앤조이는 2018년 9월 10일 가짜뉴스라고 뒷붙이며 반동성애 운동 활동가들을 지목한 기사를 썼을 때, 출처를 범인 판결이 아닌 뉴조 자체 판명으로 하였다. 특히 자신들이 가짜라고 자체 판명한 뉴스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건 잘못된 보도행태이다. 한겨레가 가짜뉴스 프레임에 터뜨렸을 때 출처를 뉴조 및 출처 불명확한 기독교 단체로 하고, 뉴조는 한겨레를 출처로 해 돌려막기 식 보도를 했다. 반동성애 활동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을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운동이 과연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전략인가? 민주주의 사회가 언론 매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국민들은 어느 견해가

국가에 이득이 되고 합당할지 취사선택할 기회의 장을 열어놓아야 한다.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을 가짜뉴스라 낙인찍어, 반대할 자유, 표현할 자유를 차단해 공론장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박탈하는 건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된다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내놓는 통로가 막혀버린다. 한 가지 의견을 진리라고 내세운다면 전체주의 사회로 될 가능성이 있다.

5. 뉴스앤조이는 언론기관으로서의 존재양식의 모호함을 해명해야 한다.

뉴스앤조이는 회사의 존재양식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뉴조는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을 ‘회사’라고, 강도현 씨를 ‘대표’(또는 오너)라고 소개함으로써, 뉴조가 개인사업자 소유임을 명시한다. 반면 뉴조가 수익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조이스터에서는 뉴조가 ‘법인’이라고 소개돼 있다. 이미 2008년에도 주식회사 해산 후 불분명한 법적 실체로서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사과한 바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역시 회사의 존재양식에 대한 자기인식이 모호하고 부족한 것은 언론기관의 법적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언론기관으로서의 자질미달이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 절차에 의거한 언론기관 운영에 대한 의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뉴조는 왜 회사의 존재양식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현재 시점에서 홈페이지상에서조차 일관성을 갖고 명시되지 못하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해명해야 한다. 자신의 조직에 대한 일관된 정체성이 없이 편리성과 시의성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 조직은 정체성에 입각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뉴조는 언론기관으로서의 조직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혀서 외부인들에게 자신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6. 뉴스앤조이는 후원금 모금 및 탈세 등 재정적 의혹을 해명하고 의혹에 대한 대응방식에서 변화해야 한다. 뉴스앤조이는 광고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인 회원에 의한 후원을 주로 받기 때문에 뉴조가 비영리법인으로서 불특정다수에게 후원금을 받는 것은 ‘가부금품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뉴조가 지원을 받

는 공인법인 ‘한빛누리’ 역시 증여세 미납으로 인한 탈세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언론기관은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신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다른 기관이나 인물들을 비판하던 기준으로 혹독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변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의혹과 비판이 제기될 때 정면 돌파하는 자세를 촉구한다. 근거가 없는 의혹은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며 의혹의 여지가 있는 사항은 시정하도록 해야한다. 의혹이나 비판에 대한 관심을 특정 인물의 비판이나 다른 이슈를 통해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국사회의 발전과 교회의 성숙에 역행하는 자세이다. 이는 촛불집회에서 그토록 청산하기를 열망했던 적폐의 행태이다. 사안의 내용과 해결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정치적 이해당락에 빠진 적폐세력들과 같은 대응으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한국사회와 여러 과제를 안고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야 하는 한국교회에서 기독교 언론으로서 존재 의의를 나타낼 수 없다. 외부인들에게는 엄격하고 자신들에게 관대한 자세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 기반 자체를 허무는 행위이다.

7. 뉴스앤조이의 그릇된 보도행태를 타산지적으로 삼아 기독교 언론들은 기독교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촛불민심의 지지를 얻고 탄생한 정부의 국정능력에 대한 기대와 실망감, 복핵으로 대변되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위기감, 통일에 대한 열망과 과정에 대한 우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 등 대처해야할 많은 이슈들이 있다.

한국 기독교들은 이번 뉴조의 그릇된 보도 행태들을 타산지적으로 삼아 향간에서 비판받는 여러 교회 문제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쇄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여 스스로 거룩과 성숙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된 사회 안에서 사회 구성원 및 성도들의 영적 안녕을 위한 연구와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과 준비 등 산적한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기독교 언론들은 그 정체성 확인, 사명과 역할, 교회의 공존 방식 등에 대한 점검과 문제의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새 포도주로 놀랍게” 연요한 목사의 ‘아침을 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맑은 눈망울이 번져나가 영원한 낙원이 되길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님께서 저의 지난날을 용서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 주시며 우리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저의 영혼은 영적인 일에 너무도 무지합니다. 바짝 말라 텅 비어있

는 저의 마음은 고통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제 앞에 기적을 주옵소서. 가지가지 그릇된 것들로 아픔을 대체하려 애를 썼지만 지난날은 후회로 수북이 쌓여있고 온갖 산만한 일들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머리는 미래의 염려로 가득하여 어지럽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에 주님이 계시어 기적으로 복을 주신 주 은혜 힘입어” 새 포도주로 놀랍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의 삶이 풍부해져서 함께 즐기고 배

부르게 먹고 있을 때에 은밀히 갑작스레 난처한 상황이 닥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초대된 잔치자리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오신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 동네 전제가 벌이는 잔치인데 큰일 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때 나타난 표정으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성서에서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기적도 무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새 하

늘과 새 땅도 역시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요2:11)

참으로 훌륭한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남겨 두십니다. 세상의 포도주는 황홀한 세계를 잠깐 주지만 아침이 되면 머리와 마음을 모두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속을 갈아먹는 공허함을 또다시 맛보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 다니지 말게 하옵소서. 어머니의 요청에 순응

하신 예수님은 겻세마네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잔 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기적, 꿈, 비전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니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심경》첫 구절 중에서

다산 정약용, 퇴계 이황, 정조 이산... 그들은 왜 마지막까지 《심경》을 읽었을까?

“지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온 힘을 다함으로써, 그간의 공부를 《심경》으로 매듭짓고자 한다. 아, 능히 실천할 수 있을까!” — 다산 정약용

“나는 《심경》을 얻은 뒤에 비로소 마음을 공부하는 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공부에 뜻을 두고 일어서 평생 분발할 수 있는 힘은 이 책에서 나왔다.” — 퇴계 이황

공부의 마지막에서 도달한 깊은 경지, 마음 마음공부의 ‘끝판왕’이자 지금은 잊힌 조선 최고의 베스트셀러, 《심경》이 이야기해주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

다산의 마지막 공부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조용재 지음 | 값 15,000원



내가 단단해지는 새벽공부
천년의 내공
조용재 지음 | 값 15,800원

창원출판